

花山府院君 추향 및 신도비 제막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 현암 묘소에서



▲ 화산부원군의 향사가 봉행되고 있다.



▲ 화산부원군 향례에서 권정택 초헌관이 강신례를 행하고 있다.

묘전에 권진택權晉澤 종회장이 고유제를 올렸는데 그 고사告辭는 다음과 같았다.

유단군기원사천삼백사십이년維檀君紀元四千三百四十二年 세차기축구월 병신삭초일일병신歲次己丑九月丙申朔初一日丙申 십팔대손진택감소고우十八代孫晉澤敢昭告于 현십팔대조고 증보조공신대광보국승록대부의정부우의

정顯十八代祖考 贈輔祚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 행가선대부판강계부사겸강계도도절제사화산부원군부군行嘉善大夫判江界府事兼江界道都節制使花山府院君府君 현십팔대조비 증정경부인개성왕씨顯十八代祖 贈貞敬夫人開城王氏 복이유구세월묘도불근병선중첩위의궐비택조협착계절애단伏以悠久歲月墓道不謹兵重疊衛儀闕備宅兆狹窄階崖斷 금가수치확충명당개후광사구원유신금석현각수립팔척승민의연용위연수今加修治擴充明堂改後廣莎舊原維新金石顯刻樹立八尺崇珉毅然用衛喜隧복유존령시빙시안영세시녕伏惟尊靈是憑是安永世是寧

아, 단군기원 4342년, 세월의 차서로 기축년 9월 병신삭 초하루 병신일에 18대손 진택이 감히 드러나신 18대조고 증보

조공신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우의정 행가선대부 판강계부사 겸 강계도 도절제사 화산부원군 부군과 드러나신 18대조비 증정경부인 개성왕씨께 밝혀 아뢰옵니다. 엿드려 생각컨대 유구한 세월에 묘소를 섬기는 도리를 삼가지 못하고 병화가 거듭 겹쳐 위의를 갖추지 못한데다 묘역이 협착하고 계절 앞이 깎아지른 언덕이 저 있어 이번에 수치하면서 명당을 확충하고 배후의 사초도 넓히니 옛 언덕이 바야흐로 새롭게 되었는데 금석에 훌륭히 새겨 8척으로 높이 세우니 큰 옥돌이 의연하여 묘소로 오르는 길을 호위하게 되었사온즉 엿드려 헤아리건대 높이신 혼령께서는 이로써 빙의憑依하시고 이로써 평안하시어 영세토록 정녕靖寧하소서.

고유에는 화산부원군의 본손만이 참여하여 150여 명에 이르렀고 고유에 이어 바로 추향례가 봉행되었는데 그 집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초헌관 : 권정택權貞澤
아헌관 : 권오철權五哲
중헌관 : 권동준權東俊
대축 : 권경택權暻澤
집례 : 권남옥權南玉
좌집사 : 권명택權明澤
우집사 : 권인택權仁澤
사준司 : 권동안權東顏

세사歲事를 만든 후 화산부원군 후손들은 그 후록의 단소로 올라가 11시부터 시작되는 추밀공·중헌공 양대의 향사에 참례하였다. 그리고 화산부원군 묘소의 오른쪽 묘도墓道 중간에 세운 신도비神道碑의 제막식은 추밀공·중헌공의 향사까지 마치고 중식 음복을 한 후 오후 1시경에 거행되었고 화산부원군의 본손 외에 추밀공 향사에 참여한 방손들도 다수 참석하였다. 권경안權貞顏 중회 총무의 사회로 열린 제막식에서는 신도비문이 먼저 봉독되었다. 권정택權貞澤 중회 부회장이 봉독한 비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贈議政府右議政花山府院君權公神道碑
贈輔祚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行嘉善大夫判江界都護府事兼節制使花山府院君安東權公神道碑銘序
昔漢宣成開道墓前建石柱爲標曰神道而來宋王半山刻趺篆首作此銘詩陳之隧道以永矣其云蘇東坡序司馬溫公神道碑曰忠清粹德云爾世家望族孝子誠孫爭先顯刻於祖先之堂斧式增景彩事修厥德用誓無所生之任者莫善於此也恭惟花山府院君

相公本自文武兩全英巍賦稟杆國忠君躬率成仁蘊德餘慶化育後昆十萬使周遍瀛者瀝然汗青焉 沒後至於五百七十餘祀羨道已無越丈之豎奄于今遲起伐石之議夫晦顯事理各由其機然也歟乏人之餘無狀濫受弄作金石雕蟲之微不敢辭獲命謹按府院君諱復字子初生氣未詳蓋一三九二年壬申只臆朝鮮開國之二三載也鼻祖高麗開國太師亞父功臣諱幸本新羅宗室佐太祖炳幾達權得姓權以安東爲食邑本貫公其後十七世也七代祖樞密院副使諱守平出關安東就京師由艱苦末職清直顯達至於麗史立傳生翰林平章事太子太師諡忠憲諱生知僉議政丞文衡諡文清諱生領都僉議永嘉府院君大提學諡文正世稱九封君諱溥生其四男初諱載忠宣王爲子賜姓名王煦領都僉議 林府院大君諡正獻於公會王考也王考光祿大夫同知密直監察大夫姓諱王重貴麗末以三十五歲無辜被禍考諱肅麗朝文科出仕開國後以前朝宗室避迫杜隱賴再從兄陽村奏達復姓權歷承旨諫長都憲大司成史參至恭安府尹後以公貴贈資憲大夫戶曹判書聘貞夫人驪興閔氏典校令中立之女驪山府院君瑾之孫宰臣祥伯之曾孫贊成事許諗之外孫生公居仲伯氏判濟用監贈漢城左尹循季司贈直長得也公挺生文昌武曲之垣嘗登小科蓮榜太宗十七年一四一七年又捷武藝仍擢宿衛轉拜文書內職世宗七年一四二五年七月九日義禁府知事以體覆別監遣慶尙左道劾各浦兵船傷破事由事載世宗莊憲大王實錄焉同年十一月二十七日世宗大王與東宮文宗幸東郊公以大護軍扈從御駕試射於箭串次其絕倫弓馬史冊特筆歷判司僕寺事判通禮院事等職世宗十四年一四三二年三月十八日陞東班通政大夫拜兵曹右參議同年六月二十三日如阿木河慰接中朝使臣張童兒奉帝命率兵獵海東靑於白頭山女眞地面者同十一月十六日見拔燕行進獻使而秩卑之議替差戶曹參判朴信生翊世宗十五年一四三三年五月十三日以戶曹參議遂擢皇明北京進獻正使而渡國境狀奏邊警其辭曰近者婆猪江住野人等糾合同類成群突入本國江界間延等處殺害平民擄掠人口牛馬財產去訖其後本賊等頻頻遣人詐稱忽刺溫野人等欲要再來作賊如此恐窺向邊郡賊計難測於宣德八年四月間著令平安道都節制使崔閔德等部領軍士哨探賊本賊等抗拒對敵力窮逃竄今獲賊徒數內曾被本賊擄掠遼東開元等處住坐男婦共二十四名到於中途病故二名其餘廖蠻子等二十二名就差通事護軍宋成立管押解送遼東都事交割外臣竊詳先爲此事已令陪臣金乙亥 擎奏本赴京去後今據上項事理理宜奏達公使行中狀奏邊警之三日五月十六日拜兵曹左參議還國後過歲世宗十六年一四三四年四月二十二日擢拜銓選最要天官右

參議此卽莊憲大王之優渥異數而公已通大小科兩場雖文班高選顯職臺諫等所無間言也未久六月二十八日陞吏曹左參議乃席卷兩銓曹四參議且歷天地司馬三曹侍郎者然同年八月五日罷職以不遵禁迎餞會飲之令之責此公以兼帶慣習都監副提調不得不詣判中樞李順蒙赴慶尙都節制之任與趙從生赴全羅都觀察之任餞別宴以連累也後三月十一月二十一日陞嘉善大夫拜江界道都節制使兼判江界府事十一月二十一日辭於勤政殿百官朝會上引見曰卿離親遠行必有隱憂然予念江界境連彼土非他人所能當也且吾力方強之時宜寄如此之任卿宜體此其施措之方卿何待予言云後六月餘世宗十七年一四三五年六月五日乙巳日條實錄所載公之卒記曰江界節制使權復卒復字子初安東人丁酉中武科累遷判司僕判通禮兵史曹參議甲寅拜江界節制使階嘉善至是巡邊向滿浦口子路遇崖石墮中左肩而卒復善射且有吾力及卒莫不惜之子七溫良恭儉讓畏慎恭尙太宗女淑謹翁主大王聞啓震悼後十日附議政府六曹曰復遠赴邊任遇變殞命雖非戰死之比亦是可憐且爲駙馬之父吊恤之數宜當加隆致賻致祭路次支持等事何以爲之追贈則黃喜等曰宜資憲李孟昉等曰品秩宜依已定之制致賻致祭則盧 等曰依京官二品例黃喜等曰宜兼行致弔其路次支持則僉曰宜抄車兩人卒遞送且令經宿各官設朝夕奠供給從者又令所過江界平壤黃州祭之上命從之喜等之議唯致賻特加十石因追贈資憲大夫兵曹判書尋過二十餘日七月七日殯次留江界府衙三男花川君恭既謝恩使赴燕歸途入平安道奔喪于江界府而隨返葬行至四十餘日喪行到京第九月十八日賜御祭其文曰君臣之間生則篤於恩義死則備其哀榮此古今之常典也惟卿稟資雄偉操行忠勤早登蓮榜又捷武藝號爲良將擢居宿衛之士頃者(ㄱ).我邊 授畧鉞之威益資干城之重夫何一夕奄爾不淑脩短之期雖天所定卿之殞命實出意外訃音之至悲哀倍常卽令追贈崇秩兼致賻儀且命禮官 陳薄奠茲恤典之特加慰英魂之不昧靈其有知歎此一觴葬于長湍郡津東面下浦里玄巖日月峰下辛坐之原公初卜宅後二十年世祖元年一四五五年九月五日三男花川君錄佐翼功臣三等勳而後三年一四五八年六月二十九日頒功臣教書加贈公爲輔祚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追封花山府院君配贈貞敬夫人開城王氏校書監 女贊成事福命孫宰臣安靖公會孫左尹坡平尹承慶外孫生沒年月亦未詳按舊墓表等以推夫人生時受贈貞敬之爵始知夫人後公二十年而後考終焉墳封乾位 左兩形也凡育七男三女男長溫戶曹佐郎佐翼原從功臣贈左通禮次晉州牧使佐翼原從功臣良次太宗駙馬推忠佐翼功臣光德大夫都節制使